

말씀대로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십 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평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험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역대하 14:1-7]

그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룬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 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역대하 16:7-10]

우리 대학부 아이들이 가까운 곳으로 집회를 나갔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오 목사님이 1시간 거리인데 10시간이 걸려서 갔대요. 1시간 거리를 10시간 걸려서 갔다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같이 출발했던 어떤 분은 3시간 만에 할 수 없이 옆으로 빠져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 목사님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야겠기에 10시간 걸려서 갔대요. 남의 일이라도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좀 안됐죠?

대학을 한 번에 들어간 사람하고 두 번, 세 번 해서 들어간 사람하고 누가 더 고생을 하나요? 한 번에 들어간 사람이 고생이 제일 적죠. 한 번에 들어가면 될 일을 세 번, 네 번 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들어가죠? '누구는 그러고 싶어서 그러냐?' 하지만 자기 스스로 자초해서 그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공부할 때 제대로 하면 그 고생 안 해도 되죠. 그런데 할 때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더 고생하게 되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한 방에 깔끔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걸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해서, 1시간 갈 것을 10시간 걸려서 간다든지, 아니면 한 방에 들어갈 것을 몇 번 고생해서 들어가듯이, 물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삼수 사수는 아닙니다마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도 엄청 고생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야곱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인생살이 자체가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할 만큼 저절로 갔어요. 그런데 야곱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그가 스스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정해진 답입니다마는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과정이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처럼 가는데 어떤 사람은 갈팡질팡 고생을 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같은 천국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평탄하게 가고 누구는 이렇게 헤매느냐? 우리에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오늘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점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유다에 선한 왕이 정말 드물어요.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 중에 선하다는 평가를 받은 왕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쪽 유다에도 선하다고 하는 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선하다는 평가를 받은 왕이 8명 정도 있지만 끝까지 선하다고 할만한 왕은 한 사람도 없어요. 결국 배은망덕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어릴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누군가 간신히 살려서 몰래 키워요. 그러다가 왕이 됐어요. 은혜를 갚아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빼내어 살려서 왕이 되게 했던 그 제사장의 아들까지 죽이는 왕이 등장해요. 평가는 선한 왕으로 되어 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참 배은망덕한 왕이죠.

선한 왕 중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왕이 나와요. 분명히 선하다고 평가를 받았음에도 온갖 실수를 다 저질러서 자기도 고난을 당하고 백성들도 고난을 당하게 하는 왕이 많이 나와요. 선하다고 평가받은 왕이 온전하게 선하다거나 끝까지 선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중

에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사 왕입니다.

남쪽 유다의 3대 왕인데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또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고 합니다. 다윗같이 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칭찬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온전하였다고 그러는 것도 정말 귀한 평가예요. 굉장히 드문 겁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했던 41년 동안 나라가 거의 태평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오점을 남겨요. '우리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느냐?'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14장 1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십 년 동안 평안 하니라' 그렇습니다. 우선 초창기 10년이 참 평안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렇게 태평했던 것은 소위 종교개혁이었고,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을 전부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만 섬기도록 했는데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는 말이 15장 3절에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 되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율법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는 이런 경우가 어떻게 가능하냐 싶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고 솔로몬 시대에 이방 공주들을 많이 들이면서 우상 숭배가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을 이은 아들 르호보암은 악한 왕입니다. 솔로몬의 손자도 여전히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말기부터 솔로몬의 아들, 손자 때까지 계속 악한 왕이 이어지니까 이스라엘에 율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없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솔로몬의 증손자인 아사 왕이 들어와서 자기 조상들이 들여놓았던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설명은 없어요.

아버지는 영망진창인데 참 괜찮은 아들이 태어나는 수가 있더라고요. 이걸 사람의 힘으로 되게 야닌가 봐요. 어쨌든 아사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유는 어쨌든 간에 아사가 왕이 되고난 이후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고 말씀대로 살게 했더니 나라가 10년 동안 태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태평성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까지 고백을 하네요. 그러고 보면 왜 성경이 아사 왕이 선한 왕이었다고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아사 왕 시절에 9절을 보세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백만 명과 병거 삼백 대를 거느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집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집트 왕이 백만 군대와 병거 삼백 대를 거느리고 침입을 하는 겁니다. 이 때 아사 왕이 거느리고 있던 군대는 오십만이 안 되었습니다. 절반도 안 되었죠. 절반도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아사는 기도를 합니다.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 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 주셔서 백만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대단한 승리죠.

옛날 전쟁은 거의 대부분 머리 숫자로 싸우는 겁니다. 절반도 안 되는 군대로 백만 대군을 물리쳤더라? 그것도 기도함으로! 참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무명에 가까운 선지자 아사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런 말을 전하거든요.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마당에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면 받아들이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사의 기분이 어떠할지를? 엄청난 승리로 흥분해 있을 때에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겸손하게 그 선지자 앞에 엎드려서 그 선지자의 말을 다 순종합니다.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조금 되어간다 싶으면 교만해져서 실수하고 실족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사는 엄청난 승리를 하고도 겸손하게 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그 동안에 남아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모든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것이 아사시대 긴 기간 동안 나라가 평온했던 비결이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가 평온해지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북쪽에 있었던 신실한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합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마구 내려오는 거예요. 아사 왕의 시대가 얼마나 평온하고 좋았으면 쪼개져서 북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남북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러니 북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남 유다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 당시

쿠데타로 나라를 얻은 북쪽의 왕 바아사가 남쪽의 아사 왕과 사사건건 싸웁니다. 그렇지만 싸움이 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바아사와 아사 사이에 일평생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태평성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봐서 걱정할 것이 못되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북한 생각하면 걱정이 좀 되세요? 핵을 만들었다는데, 군사가 저렇게 많다는데, 자꾸 도발을 한다는데 걱정이 되세요?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시비를 걸까요? 자기들이 강하다고 생각되면 안 걸어요. 불안하니까 거는 거예요. 개가 왜 사람을 무는지 아세요? 개는 사람이 두려울 때 물입니다. 사람이 개 앞에서 겁을 내거나 무서워하는 꼴을 보이면 물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겁을 내지 않으면 개도 함부로 물지 않아요. 여하튼 아사 왕 시절에 북쪽에서 자꾸 건드렸지만 그것이 문제가 안 되었더라고 합니다.

그런 후에 아사 왕은 허물어졌던 여호와와의 성전을 다시 중수하고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여호와와의 절기들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갈수록 예쁜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데 태후가, 어떤 성경에 보면 모친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라고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실상은 할머니입니다. 태후가, 왕의 할머니가 아새라 독살을 만들었어요. 이걸 보고 아사 왕이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전부 불살라 버렸어요.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통치해 나갔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부터 또 아사 왕 시절에 전쟁이 없었더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의 인생이 끝났더라면 아사 왕의 인생은 완전무결한 왕, 흠이 없는 선한 왕이 될 뻔 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약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16장을 보세요. 바아사 왕이 도전을 해 옵니다.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아사가 남쪽 유다를 계속해서 건드렸음에도 잘 안되니까 남쪽을 치러 하는데, 라마를 건축한다는 것은 휴전선 부근에 아주 강력한 진지를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주목적은 남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차단하고 유다를 어떻게든 건드려 볼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남쪽을 겨냥해서, 지금 북한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휴전선까지 끌어다 놓은 셈입니다.

아사 왕이 말년에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을 담대하게 처리했다라면 참 좋았을 텐데 본문에 보니까 '아사가 여호와와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을 좀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 이스라엘을 치니까 바아사 왕이 공사하던 것을 중단하고 그 쪽을 지키러 올라간 겁니다. 아사 왕이 거의 평생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잘 했어요. 너무 긴 세월동안 위험도 없고 평안한 생활을 보냈는데 말년에 조그마한 위험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는데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힘이 약하면 주변의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은까지 다 갖다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봐도 된다는 뜻이죠.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런 일을 했을 때에 선지자 하나니가 와서 책망을 하는데 그것이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니' 아사가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말이 나오죠? 이 망령이라는 것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노망이 들었다란 이야기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말년에 이럴 수 있겠구나! 싶은 게 저도 조금은 알 듯 싶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생전에 온전하게 사셨던 분이 예전에 안하던 짓을 하더라고요.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저 분이 예전에는 저런 말을 하지 않으시던 분이데? 아, 이게 망령되고, 노망이고 그런가보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도 정년이라는 것을 만들어 뒀나 봐요. 사람은 그래야 할 필요가 있나 봐요. 나이가 들면 문제가 되더라는 얘기죠.

다윗이 말년에 일찍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늙어 죽을 때까지 왕위에 있었더니 결국은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운 아들 하나를 잃고 충신들이 많이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것도 너무 오래토록 왕권을 쥐고 있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러니 연세가 많이 들었고 이제는 물려 줄 때가 되었구나. 싶을 때는 물려주는 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아사왕은 오랜 세월을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마지막에 판단을 잘못된 것이 선지자의 표현을 빌리면 '망령된 짓'이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하면 노망인가 봐요. 일반적으로 나라에 위협

이 닦쳐왔을 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주변의 다른 나라에 의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왕,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잘 섬겨왔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웃나라를 들어서 도와주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용기를 냈어야 하는데 문제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있던 보물까지 다 갖다 준 것을 보면 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 겁니다. 만일 이 때도 왕이 하나님만 의지했더라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뿐만 아니라 아람군대까지 다 격파해서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터인데 이제 왕이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전에 구스가 백만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격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뭘니까? 이렇게 책망을 했더니 아사 왕이 전에는 선지자의 말을 그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였던 그 아사 왕이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투옥해 버린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학대했더라고 합니다.

아사 왕이 지금 이날까지 전쟁이 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살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나를 지켜준 것이지 내가 잘 나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아사 생애에 구스 왕이 쳐들어오는 것 외에는 전쟁다운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왕의 마음이 변하는 이 순간부터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은 나라가 힘이 없고 그 나라가 힘이 강하니까 그래서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왕의 변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거나 나라 형태를 보면 우리나라에 일어난 전쟁이나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이나 그것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나 안 섬기나 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냐?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 변심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 현상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현상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모든 권력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눈에는 보여야 합니다.

성경 두 군데에서나 아사왕은 일평생 온전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여기를 보면 말년에 변심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참 이상하죠. 말년에 변심한 것은 짝막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면서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다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감사하죠. 우리는 사람이 조금 잘못된 것을 보면 그것을 물어서 그 이전에 잘 한 것까지 다 감추어 버립니다. 잘못된 것 하나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데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아사 왕이 마지막에 이렇게 변심했는데도 성경은 ‘아사 왕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다’고 말해 줍니다. 이것이 참 감사한 겁니다.

아람 왕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내려가면 또 하나 생겨요. 치세 말년에 발에 병이 났는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각에서 병이 나면 병원에 가는 것이 잘못이냐? 아니에요. 병원이나 의사나 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니 잘 쓰는 것은 절대로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의사나 약을 안 쓰겠어.”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의원보다는 하나님을 찾아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라면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야 하는데 의원을 먼저 찾았더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인용해서 아프기만 하면 “나는 병원 약 안 쓸 거야.” 하고 기도만 하고 버티는 것은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은사로 주신 것이니까 잘 써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 문제는 아사 왕이 말년에 하나님을 잊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신앙, 한 번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변함없이 하나님만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신앙이라는 것이 꼭 왔다 갔다 흔들려 가면서 가는 거냐? 아니면 끈게 똑바로 하나님만 향해 걸어가는 것이냐?

성경에서 좋은 예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길을 잘못 가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일편단심 예수님만 향하여서,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다만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앞만 보고 살아갔습니다.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닐 때는 갈팡질팡 했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전혀 흔들림 없이 죽기까지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죽기까지 신앙을 함부로 저버리지 않았습니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신앙을 지켜 나갔고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선조들께서도

일단 한 번 믿은 그 믿음을 얼마나 잘 지켜 갔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칭찬받고 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나중에 이렇게 변해버린 사람들이 대체로 왕들이에요. 솔로몬이 그랬고 아사가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하다고 하는 왕들이 다 그랬습니다. 재미있는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거나 가르치던 사람들은 거의 다 변하지 않는데 반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불안정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나마 내가 목사가 됐으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천하에 놈쟁이가 됐을지 모릅니다.” 이런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저는 어느 쪽일까? 생각을 해 봤는데 저도 잡기에 능한 쪽에 해당이 됩니다. 잡기에 능하다는 게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송창식이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데 저는 다행인 게 어릴 때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에 꽂힌 거예요. 우리들을 가르쳐 준 좋은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에도 열심을 품었지만 다른 것도 이것저것 좋아하는 것 해 보다가 어느 순간 모든 취미를 다 끊어버리고 말씀만으로 가자! 저는 일찍 그렇게 됐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린 적이 별로 없는 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도 해 보고 싶고, 저것도 해 보고 싶은데 목사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못하고 있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목사가 된 것 자체가 복이 된 경우도 있죠. 왕을 한 번 보세요. 자기 권력으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흔들리지 아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선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본문 보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먹고 살만 하고 걱정이 다 사라질 때쯤 되면 신앙이 흔들리기가 쉽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이 후해요? 가진 사람이 후해요? 흔히 하는 말 있죠. 있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있다고 더 많이 베푸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있는 사람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이 말한 대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주셔도 감사하고 가져 가셔도 감사하고’ 이것이 변함없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에 선하다고 평가 받았던 왕이 끝까지 선할 수는 없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내릴 수 있는 답은 이런 거예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끝까지 성공적으로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예요. 사람이 변하는데 몇 년이 필요해요? 어떤 것은 평생 가도 변하지 않아요. 정말로 고약한 버릇 같은 것은 고쳐 보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나쁘게 변할 때는 한 순간에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저와 같이 있었던 집사들 중에 못된(?) 집사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7년쯤 가니까 변하더라 그래요. 그런 것을 어디서 봤나 봐요. 제가 그랬어요. “난 늦게 목사가 돼서 은퇴할 때까지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 변하려고 해도 변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애. 그래서 난 안심해도 될 거야.” 그랬더니 이 못된 집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목사님, 사람 변하는 것 한 순간이에요.” 이러잖아요. 한 대 딱 때려주고 싶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 좋을 근데 옆에 앉아서 “사람 변하는 것 한 순간이에요.” 그러잖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사람 변하는 것 정말 한 순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변하지 않는, 중심을 굳게 잡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 굳게 잡는 것,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고 우리 선조들이 날마다 외치고 살았던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살자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일평생 온전했다! 이것이 아사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지는 않지만 아사는 다른 이름을 하나 붙일 수 있어요.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선지자를 박해한 최초의 유다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참 감사하죠. 아사가 그런 실수를 했음에도 성경은 “선지자를 박해한 최초의 왕”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일평생 온전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넌 평생 온전하게 잘 했어!’ 내 덕인 줄 아십니까? 그나마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을 감사할 뿐이지 사람은 일평생 온전하게 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바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되어서 옆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태어나는 것은 쉽죠? 물론 그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태어나는 것은 쉽지만 태어나는 것은 참 쉬워요. 그런데 태어난 이후에 제대로 된 아이로 자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다 넘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참 쉬워요. 믿는다는 고백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면 자라나야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엄청난 아픔이 필요한 겁니다. “낮에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이 말을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말입니다. 선생님이 “주일에 너무 시간이 없으니 평일에 나와서 이것 좀 하면 안 되겠니?”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낮에는 바빠서 시간을 못 내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낮에 뭐 그렇게 바빠요? 이해가 가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낮에는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대요. 자라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바르게 자라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서울 시민이 되는 것은 참 쉽대요.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된답니다. 이거 정말 쉬워요. 옛날에는 통반장 도장까지 받아서 가야 됐는데, 지금은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요. 그런데 서울 시민답게 살기는 참 어렵답니다. 시민이 되는 것은 쉬운데 시민답게 사는 것은 참 어렵답니다. 그렇죠? 촌에서 다 늙은 목사 하나 왔다고 ‘촌 목사’라고 놀리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서울 산다고 품은 잡는데 ‘사는 게 힘들구나!’ 싶은 분들이 참 많아요. 서울 시민답게 사는 것이 힘들구나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서울 시민 되는 것보다 쉬워요! 동사무소에 갈 필요도 없어요. 말 한 마디만 하면 되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까 됐다! 천국은 따 놓은 거다! 이렇게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야곱처럼 이런 고생, 저런 고생, 수도 없이 고생하다가 결국 가곤 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1시간이면 될 거리를 왜 10시간이나 걸려서 가나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남 탓이 아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지 못한 채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다 보니 1시간이면 갈 거리를 10시간이나 걸려서 가고, 하지 않아도 될 수 많은 고생을 하다가 가는 성도들이 참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갔는데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면 이렇게 인생에 오점을 남기기도 해요. 아사왕은 죽을 때가 다 돼서 말년에 그랬으니까 그나마 고생을 덜 한 거예요. 도중에 그렇게 됐더라면 후반전에 전쟁 치르느라고 외적에 얼마나 시달렸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평생 교회에서 헌신하고 목회를 잘 했던 목사님들 중에 말년에 조금 한 눈 팔다가 평생 쌓아 놓았던 명예와 칭찬을 한 방에 다 날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평생을 헌신하고 은퇴할 때에 “목사님, 다시는 이 교회에 오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평생 교회를 잘 돌봐 놓고도 마지막에 욕심을 부려서 오점을 남기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시기를 당부합니다.